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41

어리석은 약속을 한 입다

(사사기 10:6~11:40)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매번 같은 잘못을 하고, 같은 벌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은 결핍하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이번에도 다른 민족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는 뻔했어요.

동쪽에서는 ‘암몬’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죠. 무려 18년 동안이나요.

그제야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저희랑 함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엉엉.”**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너희가 나를 찾을 때마다 나는 너희를 도와주었다.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힐 때도 아모리 사람이,
암몬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시돈과 아말렉,
마온 사람이 너희를 괴롭힐 때도 나는 너희를 구해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다른 우상을 믿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의 다른 신들에게 가서 너희를 구해 달라 하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을 없애 버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요.

그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셨거든요.

한편 ‘돗’이라는 지역에 ‘입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입다는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옛날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홀로 ‘돛’ 지역으로 와서
역시 갈 곳 없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죠.**

**입다의 무리는 점점 늘어나서
어느새 제법 큰 군대가 되었어요.
그러자 암몬의 침략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들은 고민 끝에 ‘입다’를 찾아갔어요.**

**“입다, 그대가 필요하요.
부디 군사들을 이끌고 암몬과 싸워 주시오.”**

**“내가 필요하다고요? 이제 와서요?
내 형제들이 나를 내쫓았을 때
당신들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내가 필요하다고요?”**

그러자 사람들이 입다에게 매달려 사정했어요.

**“그러지 말고, 제발 암몬과 싸워주게...
우린 같은 민족 아닌가?
그대가 암몬을 물리쳐준다면, 사람들이 그대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울 걸세.”**

그 말에 입다도 귀가 솔깃했어요.

“방금 하신 말씀, 참말입니까?
제가 암몬을 상대로 이기기만 한다면
저를 지도자로 세운다, 이거지요?”

“아, 글세 그렇다니까. 우리가 약속함세.”

그렇게 입다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기로 했어요.
하지만 입다는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암몬을 상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걸요.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에 해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바치겠습니다.
제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저를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꼭 좀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람을 하나님께 바친다니!
입다는 왜 이런 약속을 한 걸까요?
입다는, 약속이 거창하고 비장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바치는 대신
이런 끔찍한 약속을 하고 만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도
꼭 제물을 바쳐야만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도
아닌데 말이에요.

또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종종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입다는 비록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어요.
입다의 군대는 암몬 사람들을 물리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입다를 칭찬했죠.

입다도 의기양양해져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하하. 기분 좋구만.
역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암몬 녀석들 별거 아니란 말야. 헤헤헤.”

그런데 입다가 집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입다는 정신이 번쩍 들고 말았어요!
입다의 눈에 하나뿐인 딸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던 거죠!

“아버지!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입다에게 자녀는 딸 한 명이 전부였어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딸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며 달려오고 있었죠.

아버지를 맞이하기 위해서요!

그제야 입다는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무모한 약속을 떠올리고는 너무 후회스러운 나머지
자신의 옷을 벉벉 찢으며 슬피 울었어요.

“딸아. 대체 왜 마중을 나온 게냐...
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그건 절대 깨뜨릴 수 없는 약속이란다...
엉엉엉...”

입다와 입다의 딸은 이 상황이 너무나도 슬펐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선불리 한 어리석은 약속 때문에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뒤로 이스라엘에는 한 가지 전통이 생겼어요.
입다의 딸의 죽음을 기리는 전통이었죠.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해마다 4일 동안
밖으로 나가서 입다의 딸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꼭 지켜야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분에 따라
해버린다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약속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라면
더 더욱 많이 생각해 봐야겠죠?